

성탄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성탄(聖誕)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12월 25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절기가 실은 다양하고 뒤엉킨 사안들의 원천이 되어 왔다. 신학적으로 성탄은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 — 그리고 그 출발인 동정녀 잉태(virginal conception) — 을 전제한다. 또 성육신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성탄 메시지의 핵심이 속죄와 구원일 수도 있고, 섬김과 희생일 수도 있으며,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거나 인간성의 회복일 수도 있다.

다소 중요성이 덜한 사안으로 여겨지겠지만, 어떤 이들은 동방 박사를 인도한 별의 정체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기도 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성탄절의 역사적 기원이 이교적이라고 보아 절기 자체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책갈피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을 많이 했다 — 성탄이라는 주제를 어떤 각도에서 다루어야 할까? 게다가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든 한글로 된 책자가 적다는 점 (따라서 영서를 소개해야 한다는 점) 또한 큰 부담이었다. 고민 끝에 (날짜도 충분하지 않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임의로운 책갈피를 꾸미기로 했다. 부실의 책임은 모두 필자에게 있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 책자들은 **성탄을 주제로 하는 메시지/설교/강설집**이다. 세 권을 선보이고자 하는데, 하나는 한국인 저자의 것이고 나머지 둘은 미국인 목회자의 작품이다.



김홍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개정증보판 (서울: 성약출판사, 2009).

저자(1914-2003)는 폭넓은 신학 지식과 특유의 전개 방식으로 성경의 책들과 성경적 주제들을 강해해 왔는데, 이 책자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강설집은 저자가 1965년부터 1983년까지

19회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전달한 메시지 23 편을 골라 책자화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필자가 보기에 성탄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네 편(3, 4, 19, 23강)을 제외하면, 열 아홉 편이 남는다.

그렇다면 성탄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1강, 2강)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 가지 태도”(5강),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6, 8, 10, 15강),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7강), “은혜의 그릇으로 쓰인 마리아”(9강),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11, 12, 13, 14강),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16강), “계시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목자들”(17강),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21강)이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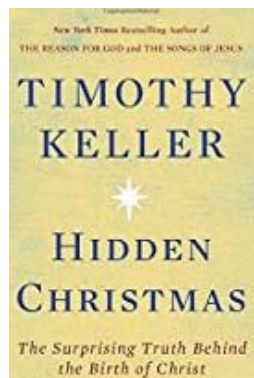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지음, 심성민 옮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성탄절 메시지」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3).

제임스 보이스(James Montgomery Boice, 1938-2000)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필라델피아의 제 10 장로교회에서 32년 간 [1968-2000년] 봉직했다. 이 책자 역시 보이스가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성탄절마다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

한 내용을 토대로 꾸며졌다. 원제는 *The Christ of Christmas*(Moody Press, 1983년 간)이다.

이 책자는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예수 그리스도와 성탄절”(두 편), 제2부 “동정녀 탄생과 성탄절”(네 편), 제3부 “첫 번째 성탄절”(여섯 편), 제4부 “성탄절의 사람들”(네 편)이 그것이다.

보이스는 총 16편의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다. 둘째, 성탄절의 하찮은 사람들** [요셉, 마리아, 목자들, 시므온, 안나, 스가랴, 엘리사벳]에 대한 “**밀착 취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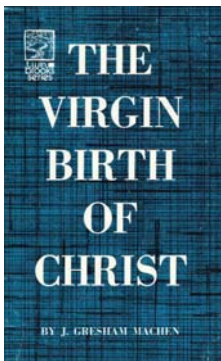
Timothy Keller, *Hidden Christmas: The Surprising Truth Behind the Birth of Christ* (New York: Viking, 2016).

팀 켈러(Timothy J. Keller, 1950-)는 탁월한 목회자-신학자-변증가로서 뉴욕 시를 거점으로 하여 건강하고도 적실한 도시 목회를 전개했고, 이를 토대로 이 시대 도시 목회의 모델을 모범적으로 제시했다. 그의 메시지는 대부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 회의나 의문을 품은 이들에게 호소력이 크다. 이 책자 역시 그런 이들을 염두에 두고 꾸며졌다.

총 8장을 구성하는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1장 빛이 비추이다
- 2장 예수의 어머니들
- 3장 예수의 아버지들
- 4장 왕이 어디에 계시는가?
- 5장 마리아의 믿음
- 6장 목자들의 믿음
- 7장 영혼을 찌르는 칼
- 8장 성탄의 교리

성탄 메시지는 성육신의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그다음에 소개하는 책자들은 **성육신과 연관된 신학적 저술들**이다. 역시 세 권을 등장시키고자 하는데, 순서는 저작 연대를 쫓은 것이다.



J. Gresham Machen, *The Virgin Birth of Chris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5).

원 저술의 출간이 1930년임을 고려한다면 올해로서 책령(冊齡) 90이 다 된, 그러나 결코 노후했다고 볼 수 없는 작품이다. 메이천(John Gresham Machen, 1881-1937)은 구 프린스턴 신학원의 신약학 교수였으나 신학교 내의 현대주의 [신학적 자유주의] 경향에 반기를 들다가 끝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의 창립에 주동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상기 저술도 메이천이 겪은 시대의 상황과 무관하

지 않을 것이다.

이 저술은 총 15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이천은 자신의 작품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제1부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라는 가설을 검토함

1장 ~ 11장까지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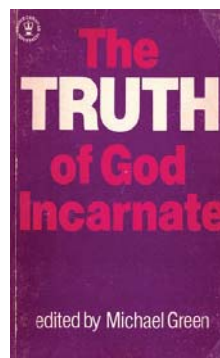
제2부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니라는 가설을 검토함

12장 ~ 14장까지의 내용

제3부 결론

15장

메이천은 제1부에서 주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증거를 살핀다. 제2부에서는 만일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관념이 배태되었는지 유대인 기원론과 이교도 기원론으로 나누어 탐색을 시도한다. 마침내 제3부에서는 전자[제1부]의 가정이 여러 모로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Michael Green, ed., *The Truth of God Incarnat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7).

때는 1977년 — 영국의 기독교계는 성육신의 성격을 놓고 적잖은 신학적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중

교 다윈론자인 히크(John Hick, 1922-2012)을 비롯한 급진적 신학자들이 성육신을 하나의 신화적-시적 표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John Hick, ed., *The Myth of God Incarnate* (London: SCM Press, 1977)으로 표명되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반응은 신속하고 격렬했다. 대표적 복음주의 학자이자 변증가인 그린(Michael Green, 1930-)은 다른 네 명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The Truth of God Incarnate*으로 응수했다. 책 제목에서부터 *The Myth of God Incarnate*의 내용을 배격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풍긴다.

그린이 편집한 상기 책자는 7편의 글/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편인 “신약의 그리스도”는 그린 자신의 글로서, 사도 바울과 복음서의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예수는 이미 신적 존재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둘째는 스티븐 닐이 쓴 “예수와 신화”이다. 닐(Stephen Neill, 1900-1984)은 선교사와 학자로서 특히 비교 종교학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Christ-story)는 주변국들의 신화와 너무도 다르며, 특히 복음서의 탄생 기사가 그렇다는 것이다. 셋째 글 역시 닐의 것인데, “예수와 역사”로 되어 있다. 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역사의 중심이라는 설명과 합치는 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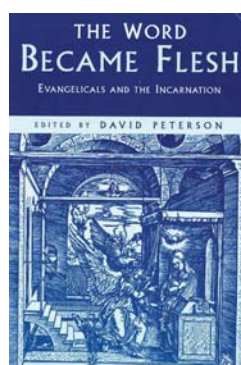
넷째 편 “예수와 후대의 정통 이론”은 크리스토퍼 버틀러가 썼다. 버틀러(Basil Christopher Butler, 1902-1986)는 뛰어난 성경학자인데, 이 글에서는 초대 교회 4세기 동안 성경의 그리스도가 “철학적으로” 묘사되지 않을 수 없던 과정을 간략

히 그리고 있다.

그 다음의 글은 브라이언 헤블스웨이트가 작성한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다”이다. 헤블스웨이트(Brian Hebblethwaite, 1939-)는 철학 신학자로서 이 글에서는 성육신의 중요성, 성육신이 함의하는 바, 성육신의 가능성을 논한다.

여섯째 글 “예수와 역사적 회의론”은 다시금 마이클 그린에 의해 쓰였다. 그는 예수에 대한 역사적 회의론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전제들을 밝힌 뒤 역사적 회의론에 대해 7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끝으로 이 회의론의 7가지 결과를 열거한다.

마지막 후기는 조직신학자인 맥쿼리(John Macquarrie, 1917-2007)에 의해 쓰였다. 그는 “성육신 없는 기독교? 몇 가지 비평”에서 *The Myth of God Incarnate*의 기고자들이 “신화,” “성육신” 등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않았고, 또 전통적 견해에 대해 불만만 표할 뿐 그들 편에서의 대안 제시가 없다고 비판한다.



David Peterson, ed., *The Word Became Flesh: Evangelicals and the Incarnation* (Bucks., UK: Paternoster, 2003).

이 책은 런던에 있는 오크 힐 신학 대학(Oak Hill Theological College)의 교수들이 2002년 5월의 방학 강좌에서 전달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복음주

의자들은 성육신 교리를 강조하면서도 성육신 교리가 함의하는 실천적 사안에 있어서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었는데, 이 책자의 주제들은 바로 이러한 결격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1장 마이클 오비(Michael Ovey):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주적 과정의 성취/완성인가?

제2장 마이클 오비: 적대적 세상에 성육하신 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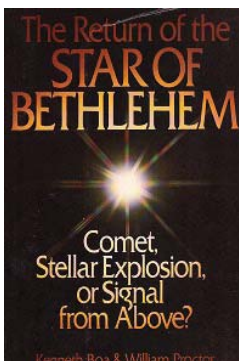
제3장 데이빗 피터슨(David Peterson): 성육신과 그리스도인의 삶

제4장 크리스 그린(Chris Green): 성육신과 선교

제5장 티모디 와드(Timothy Ward): 성육신과 성경

제6장 칼 트루먼(Carl Trueman): 성육신과 성찬

필자가 끝으로 소개하려는 책은 **동방 박사를 인도한 별의 정체**에 관한 것이다.



Kenneth Boa & William Procter, *The Return of the Star of Bethlehem: Comet, Stellar Explosion, or Signal from Above?* (Garden City, N. Y.: A Doubleday-Galilee Original, 1980).

두 저자는 동방 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별”이 유성이거나 유성의 집단이거나 큰 별똥별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어떤 특정한 성좌거나 목성·토성 등의 연접 현상도 아니라고 판정한다. 동시에 신성(新星)의 폭발 현상도 아니고 외계인의 등장은 더더군다나 가당치 않다고 본다.

그러면 그 “별”의 정체는 무엇인가? 두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 임재의 영광(shekinah glory)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초자연적 현상 —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과 같이 — 이라고 풀이한다. “별”은 사실상의 별이 아니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두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꽤 의미심장한 저술로 인정 받아야 할 것이다.



글 | 송인규

한국기독교학생회(IVF)의 총무 및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